

지역 매아리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  
정읍방문의 해 홍보활동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위원들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부안역, 동대구역을 방문해 '2019~2020 정읍방문의 해'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번 홍보활동에는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팸플릿과 기념품 3,000여점을 배부하며 홍보에 구슬땀을 흘렸다./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읍방문의 해 맞이  
유계음식업 영업주 친절교육

정읍시가 '2019~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최근 지역 내 유계음식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특별 서비스 친절교육을 했다.

교육에서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한 친절 서비스 특별 교육이 실시됐다.

이어 '사람살 친절링' 양지현 대표가 강사로 나서 '친절 올리GO 마음 다스리GO'를 주제로 친절 리더와 고객 만족 전략, 서비스 코칭 등을 안내했다.

교육에 참석한 영업주들은 "관광객들에게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해 다시 찾는 정읍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서비스 '큰 호응'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최근 주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금교실 및 무료 상담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날 김용수 마을세무사는 세금고민 해결사로 나서 8년 자영업인 양도세 감면 요건, 상속세, 증여세 등 꼭 알아야 할 세법지식을 설명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세금고민을 상담하여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고충이 있지만 경제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기 힘든 납세자들에게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 제도이다.

그동안 부안군은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 및 국제세 관련 세금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내장상동 미소거리가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로 거듭난다.

#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

### 정읍 내장상동 미소거리, 보도와 차도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제공

정읍 내장상동 미소거리가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로 거듭난다.

정읍시가 내장상동 미소거리 일대를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 시킨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미소거리는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가로환경 개선의 요구가 많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무분별한 불법 주차차로 인한 통행 불편 등 고질적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내장상동 미소거리 일대를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하도록 보도와 차도를 개선한다.

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정읍양조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총사업비 11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보행중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7억2천만원, 지중화공사 2억2천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5월 우수관로공사, 포장공사,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 6월까지 보도블록, 화단벤치, 거리조명 등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대폭 변화시킬 예정이다.

디자인거리는 미소아파트 사거리에서 롯데슈퍼까지 약200m 구간이다.

보차도 및 시설물을 개선하고 전선 지중화작업을 통해 도로변에 거미줄 처럼 엉켜있는 각종 선로를 정비하며 고공조형물을 제작설치 하는 등

도시미관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진짜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 된다.

공영주차장은 총 25면의 주차가 가능한 규모로 4월말 구)정읍양조장 철거를 시작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을 찾는 배회 교통량 감소 등으로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진섭 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디자인거리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125년전 동학농민혁명, 대한민국 민주화 정신적 기반"

###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고창서 국가공무원 노사관계 맞춤교육 진행

'걸어다니는 한국현대사'로 불리는 한홍구 교수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는 전남(28일) 고창에서 진행된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연맹-노사관계 현장맞춤 교육'에 함께해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 강의했다.

한홍구 교수는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탄과 관련 "125년전 이미 반상의 차

별과 서열, 적서의 구별에 반대하고, 노비제도 폐기는 물론이고, 여성해방과 어린이 해방까지 역설했다"며 "이는 당시 세계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표방하지 않았던 인간의 평등성을 19세기에 동아시아의 한반도, 고창 땅에서 피력한 민주주의의 혁명적 사상이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은 인간의 사회적 평등과 국가적 자주성의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로 인해 동학혁명은 인도의 '세포이 반란',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등과 함께 아시아 3대 혁명으로 꼽힌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과도 비교되는 민주주의의 쟁점 운동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 한 교수와 국가공무원 노조 간부들은 전봉준 생가터, 무장음성, 무장향교, 선운산 도술암 마애불을 둘러봤다.

한 교수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가 15명이고, 이들에게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것은 '사람이 하늘이다'는 동학이였다"며 "고창에서 확장된 동학농민혁명은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까지 면면히 이어져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움직이는 민족·민중 항쟁의 근원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연맹 간부와 조합원 40여명은 지난 24일부터 2차 3일간 고창군의 무장기포기념행사 등에 참석하고,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 시간을 가졌다./고창=김영식 기자

## "공약 이행,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 부안군,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고등급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9년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니페스토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해 종합구성(45점), 개별구성(20점), 웹소통(15점), 민주성·투명성(20점), 공약일치도(Pass/Fail) 등 5개 항목 32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부안군은 종합구성, 개별구성, 웹소통, 민주성·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에서 80점 이상을 받아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10위권에 드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평가는 민선7기 부안군정의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 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이

재대로 수립됐는지를 평가한 결과 역시 더욱 의미가 크다.

부안군은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공약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부안군의회 의결수령을 거쳐 주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에서 4개 분야 69건의 공약을 확정지었다.

이러한 공약실천계획 수립의 투명성과 민주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공약추진 과정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군민들과 첫 약속인 공약의 이행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임기 동안 공약 이행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작년 9월 전국 지자체장의 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을 평가해 선정했던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건강 100세 시대 향한 기반 구축

### 정읍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국제공인 KOLAS 인정 현판식 가져

한국방사선진흥협회(회장 정경일, 이하 협회) 정읍센터는 최근 협회 정읍센터(전북 정읍시 신정동)에서 의료방사선 품질관리의 핵심장비인 '전리함선량계에 대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서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이하 KOLAS) 인정 기관 현판식을 가졌다.

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전북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의료방사선과 산업용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시험 및 인증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읍 센터(의료방사선정도관리센터, 방사선기기시험센터)를 구축했다.

의료방사선정도관리센터는 총 사업비 89억원(국비 40억원, 도비 8억원, 시비 18억원, 협회 23억원)이 투입되어 방사능 정밀 측정이 가능한 장비 3종과 방사선기기 정밀교정에 필요한 치료 및 진단 방사선 기준 조사시스템 5종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방사선치료기기와 진단용 방사선기기의 정확도와 정밀도 관리를 위한 다양한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 전리함선량계는 정확한 양의 방사선을 투여하기 위해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양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치로서, 측정 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1년 주기로 공인교정기관을 통해 교정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협회 방사선기술연구센터장(장한기 박사)은 "본 인정을 통해 원자력안전법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법정계량 이행에 직접 사용가능하며, 의료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율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건강 100세 시대'를 향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